

#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변용과 한국어 학습 동기 연구\*

주월랑\*

## Abstract

Ju, WoalRang. (2023). "A Study on Acculturation and Korea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of Marriage-Immigrant Wome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31(4), 71-98.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patterns of Korea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according to the acculturation of marriage-immigrant women. To this end, this researcher applied cluster analysis to a total of 90 questionnaires based on Berry's Acculturation Model (BAM), using SPSS to verify differences in Korea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by type of acculturation. The cluster analysis of acculturation was classified into four types: Marginalization, Segregation,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Differences in Korea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cculturation typ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except for the ideal self group, which had high Marginalization and Segregation but low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when types of acculturation change from Marginalization and Segregation to Integration and Assimilation, Korea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related to the ideal self can decrease. There are various reasons for this

---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38340)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2S1A5B5A17038340)

\* Author: Woalrang Ju,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5-2 Seonggyungwan-ro, Jongno-gu, Seoul 03063, Korea; Email: moon4005@hanmail.net

Received 13 November 2023; Reviewed 24 November~13 December 2023; Accepted 28 December 2023.

change in the motivation to learn Korean. The current content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is limited to the roles of mothers and wives at home; that is, it reduces their Korea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to an instrumental motivation for performing their roles at home, rather than for their personal development. This study revealed that marriage-immigrant women's motivation to learn Korean can change depending on their type of acculturation. However, the analysis of only quantitative research data is a limitation of the study.

**Keywords:** marriage-immigrant women, Korean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Berry's Acculturation Model, cluster analysis, ideal self.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변용 유형에 따라 한국어 학습 동기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sup>1)</sup>.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및 문화 적응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이며, 이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은 곧 한국에서 적응하는 데에 필수적 조건이다. 특히 강나영(2009)에서는 제2언어 학습자가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목표어를 사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2언어 사회에 대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이해 및 사용 능력이 뛰어나도록 한국 사회 및 문화에 적응을 잘할 것이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한국 사회 및 문화 적응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적응 할 것이다. 그러나 제2언어 습득 과정은 단순히 목표 문화에 대해 적응과 부적응이라는 이분법적인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계다

---

1) e-나라지표에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결혼이민자 수를 조사한 결과, 2012년 148,498명, 2013년 150,865명(▲1.6%), 2014년 150,994명(▲0.1%), 2015년 151,608명(▲0.4%), 2016년 152,374명(▲0.5%), 2017년 155,457명(▲2.0%), 2018년 159,206명(▲2.4%), 2019년 166,025명(▲4.3%), 2020년 168,594명(▲1.5%), 2021년 166,771명(▼-1.1%)으로 조사되었다.

가 제2언어 습득 이후에 문화 적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습득은 문화변용(acculturation)과의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뜻하는 문화변용이란 Berry(1997)에서 제안한 것으로 두 개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 혹은 집단이 상호 간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발현되는 기존 정체성의 문화적, 심리적인 변화라고 하였다. 특히 Brown(1980: 129)에서는 이주민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가는 진행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문화변용은 제2언어 습득의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제2언어 사용 환경으로의 이주는 새로운 환경에서 물리적인 차원의 적응과 함께 언어 및 문화를 습득해야 하는 정신적 차원에서의 적응을 수반한다. 이 과정에서 제2언어와 관습 및 가치관의 학습은 기존의 인식과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쳐서 문화변용 과정을 경험한다. 즉 제2언어의 문화권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그로 인한 문화 접촉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제2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겪는다. 결국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도 Berry(1990)의 문화변용 과정을 경험함과 동시에 한국어를 습득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한국어 학습 동기 역시 변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2언어 학습 동기는 주변 환경 및 내적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인마다 다르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습 동기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Dörnyei & Ottó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변용 유형에 따라 한국어 학습 동기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이후 수집된 자료를 SPSS를 활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변용 유형별을 분석하기 위해서 군집분석을 실시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제2언어 환경으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가 통합적 동기가 높을 거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함과 동시에, 그동안 고려하지 않았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다양한 한국어 학습 동기 양상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 이론적 배경

### 2.1. 문화변용 관련 연구

문화변용은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한 적응과 관련한 것으로, Berry(1990)에서는 문화변용을 이중차원모델에 근거하여 이원적인 과정으로 개념화하여 문화변용 모델(Berry's Acculturation Model: BAM)을 제시하였다. 문화변용 모델(BAM)에서는 이주민이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주류 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의 문화변용 유형이 나타난다. 이러한 네 가지의 문화변용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통합(integration)은 이주민이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정착 사회의 새로운 문화에 대해 상호작용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취하는 유형이다. 동화(assimilation)는 이주민이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상실하지만, 주류사회의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 가는 유형이다. 분리(segregation)는 이주민이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만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습득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유형이다. 주변화(marginalization)는 이주민이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 유지에 부정적이면서 동시에 정착 사회의 주류 문화 수용과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유형이다.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문화변용 연구들은 주로 이주노동자(임선일 2010), 중국 조선족(선봉규·김나경 2013), 북한이탈청소년(홍순혜·이숙영·김선화 2010), 여성결혼이민자(김현실 2012; 이해림·박재완 2018 등)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변용 연구(김현실 2012; 이해림·박재완 2018 등)들은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연령, 교육 수준, 출신국, 경제적 수준 등)을 중심으로 문화변용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 적응에는 사회적 지지 또는 남편 및 시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여성결

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문화 적응을 돕는 변수이지만 한국어 능력이 높다고 하여 문화 적응이 수월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김현실 2012; 이혜림·박재완 2018 등)들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사회적 요소 등이 무엇인지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변용 과정과 한국어 습득 과정에 대한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즉 언어와 문화의 습득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데, 아직까지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연구들은 문화변용과 언어 습득을 함께 논의하지 못하고 각각 분리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더욱이 목표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이주민<sup>2)</sup>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탐색해야 할 심리적 요인(김미강·김영주 2018: 3)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변용 유형에 따른 한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학습 동기의 양상은 어떠한지를 논의해 보겠다.

## 2.2. 한국어 학습 동기 관련 연구

한국어교육 분야의 한국어 학습 동기 연구는 주로 Gardner & Lambert가 제시한 도구적 동기 및 통합적 동기, Dörnyei(2009)에서 제시한 제2언어 동기 자아 체계(L2 Motivational Self System)를 이론적 배경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한국어 학습 동기 연구는 대부분 교실 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혹은 한국어 숙달도와 학습 동기에 대한 관계를 주로 논의하였다. 예컨대, 한국어 학습 동기 요인 연구는 손성희·전나영(2011)을 시작으로 하여, 홍종명(2014), 지민정(2015), 전형길(2016) 등이 있다. 한국어 학습 동기와 학습 전략 연구에는 김운희·전형길(2016), 정윤나(2015), 정성현(2010) 등이 있다. 한국어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도 연구에는 권미경·이소연(2017), 이주미(2021) 등이 있다.

---

2) 김미강·김영주(2018)에서 언급한 이주민은 한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여성결혼이민자와는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어,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편 자연적 습득 환경에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 연구들은 양적으로 많지 않아서, 영어교육 분야의 연구와 함께 살펴보겠다. 우선 한국어교육 분야 연구인 류경애(2016)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정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동기를 양적 연구 방법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학습 목표 간의 상관성을 논의하였다. 연구 결과, 자신이 설정한 학습 목표에 따라 한국어 학습 동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만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한국어 학습 환경에는 개별적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과 한국어 학습 동기 변화 양상이 서로 어떠한 관계성을 지니는지는 논의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영어교육 분야 연구인 김태영(2008)에서는 캐나다 한국인 이민자 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이들의 영어 학습 동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종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캐나다 한국인 이민자에게 나타나는 주된 영어 학습 동기는 취업적 동기였으며, 그 외에도 의사소통적 동기, 발견적 동기, 상황적 동기, 자기만족적 동기, 탈동기/무동기화의 다양한 동기 요인이 존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캐나다로 이주한 거주기간이 짧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거주기간이 장기화 된 이민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문화적응에 따른 영어 학습 동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않았다. 또 Norton(1995, 2001)에서는 이민자 집단의 언어 학습은 해당 원어민 집단에 동화되기 위해 배우고 싶은 언어가 아니라, 생계 유지나 교육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학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주류 사회 집단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나 반발심에 의해서 혹은 과시용으로 언어를 학습하게 되는 마키아벨리적 학습 동기(Oller, Baca & Vigil 1977)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앞서 살핀 선행연구들 보면,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국어로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는 한국 거주

기간이나 자녀 유무, 혹은 취업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변화할 것이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가 문화변용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도구 선정 및 연구 참여자 정보

본 연구는 설문지를 활용한 정량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한국어 학습 동기 관련 설문 문항을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변용에 따라 한국어 학습 동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Gardner & Lambert의 통합적 동기와 도구적 동기, Dörnyei의 제2언어 동기 자아와 관련한 설문 문항을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Gardner & Lambert와 Dörnyei(2005, 2009)의 연구와 더불어, 이들의 연구들을 활용하여 연구한 국내 영어교육 및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박혜숙·이호정 2013; 장아남·김영주 2014; 정현경 2017 등)들의 설문들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문화변용 설문 문항은 Berry(2001)의 문화변용 척도와 함께, 이 연구를 참고한 국내 연구(노하나 2007; 신미숙 2021; 오지훈 2014 등)를 참고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사용 및 학습에 대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설문 문항에 대한 문항 내용과 문항 수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설문 문항 범주별 문항 수

범주	예시 문항	문항 수
문화변용	나는 모국어보다 한국어로 글쓰기를 더 잘한다 등	28
한국어 학습 동기	한국 사람처럼 한국인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	21
연구 참여자 기초 정보	국적, 거주기간, 한국어 학습 기간 등	8

다음으로 본 연구는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는 경기도 D도시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차 설문조사는 눈덩이표집으로 설문 응답자들에게 친분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sup>3)</sup>. 이렇게 하여 수집된 설문지는 총 102부였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중복 응답자<sup>4)</sup>를 제외한 총 90부를 연구 자료로 삼았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

문항 내용		명	비율(&)
연령대	20대	11	12.22%
	30대	42	46.67%
	40대	30	33.33%
	50대	6	6.67%
	60대	1	1.11%
	합계	90	100.00%
국적	중국	28	31.11%
	홍콩	28	31.11%
	베트남	13	14.44%
	필리핀	8	8.89%
	대만	4	4.44%
	일본	4	4.44%
	기타 <sup>5)</sup> (볼리비아, 스페인,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5	5.55%
합계	90	100.00%	
한국 거주기간	5년 미만	24	26.67%
	5년 이상 - 10년 미만	33	36.67%
	10년 이상	33	36.67%
	합계	90	100.00%
한국어	1년 미만	19	21.11%

3) 1차 조사기간은 9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였으며, 2차 조사기간은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였다.

4) 본 연구의 설문지는 각각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였는데, 11명이 한국어 설문지와 모국어 설문지에 중복 응답하였기에 제외하였다. 또 1명은 문화변용 및 한국어 학습 동기와 관련한 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에 비어 있는 문항이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학습 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22	24.44%
	2년 이상 - 3년 미만		13	14.44%
	3년 이상 - 4년 미만		8	8.89%
	4년 이상 - 5년 미만		11	12.22%
	5년 이상		17	18.89%
합계		90	100.00%	
자녀 유무 및 자녀 수	자녀 무		13	0.00%
	자녀 유	1명	37	1.11%
		2명	36	2.22%
		3명	3	3.33%
		4명	1	4.44%
	합계		90	100.00%

### 3.2. 연구 자료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수집한 연구 자료를 분석하기에 앞서,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응답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해 본 결과, 아래 <표 3>처럼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문항 제거 없이 분석하였다. 또 본 연구는 아래 <표 4>와 같이 본 연구에서 수집한 설문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Cronbach's  $\alpha$  계수가 0.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문화변용과 한국어 학습 동기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의 신뢰도는 높았다.

<표 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KMO와 Bartlett의 검정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70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3064.736
	자유도	1176
	유의확률	.000

- 5) 기타 국적으로 조사된 설문 응답자들은 볼리비아 1명, 스페인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캄보디아 1명, 태국 1명이다.

〈표 4〉 측정 변인들의 신뢰도 측정 결과

Cronbach's $\alpha$	
0.89	49문항

## 4. 연구 결과 분석

### 4.1. 상관분석 결과

우선 문화변용 단계 및 한국어 학습 동기와 관련한 모든 측정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문화변용과 한국어 학습 동기 변인 간의 상관분석 결과

변인	문화변용				한국어 학습 동기			
	1	2	3	4	5	6	7	8
문화 변용	1	1						
	2	-.330**	1					
	3	0.105	-.224*	1				
	4	.288**	0.019	.546**	1			
한국 어 학습 동기	5	0.041	0.145	.535**	.598**	1		
	6	.283**	-0.147	0.121	.358**	.291**	1	
	7	0.136	.240*	0.155	.394**	.477**	.511**	1
	8	0.173	.233*	0.118	.360**	.457**	.525**	.819**

1=분리, 2=주변화, 3=동화, 4=통합,  
5=이상적 자아, 6=필연적 자아, 7=통합적 도구 지향, 8=도구적 도구 지향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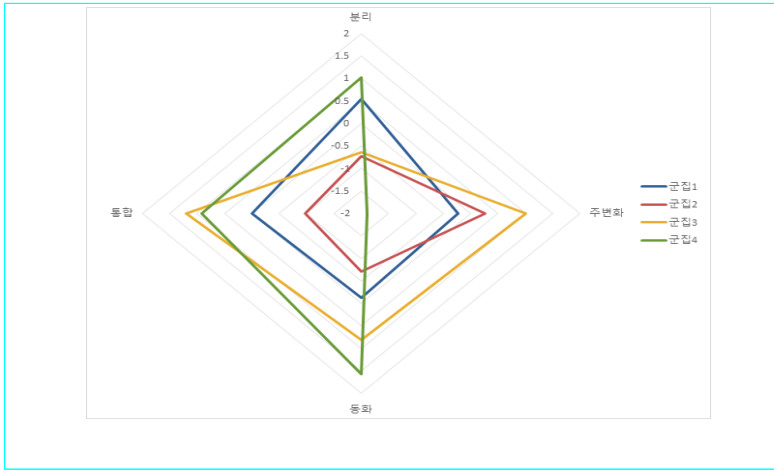
위 〈표 5〉에서 보듯이 문화변용 단계 변수들인 분리는 이상적 자아( $r=.535$ )와 정적 상관성을 보였으며, 주변화는 이상적 자아( $r=.598$ ), 필연적 자아( $r=.358$ ), 통합적 도구 지향( $r=.394$ ), 도구적 도구 지향( $r=.360$ ), 동화는

필연적 자아( $r=.283$ ), 통합은 필연적 자아( $r=.283$ )와 정적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관성 측정 결과는 문화변용 단계에 따른 한국어 학습 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래 4.2절에서는 문화변용 유형별로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4.3절에서는 한국어 학습 동기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겠다.

## 4.2. 문화변용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 4.2.1. 군집분석 결과

본 연구는 문화변용 유형별로 응답자 집단을 분류하기 위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이란 종속변인 간 통계 기법으로 여러 변수들을 일정한 속성에 따라 몇 개의 군집(cluster)으로 분류한 후 동일한 군집에 소속된 변수들의 유사성과 다른 군집에 속한 변수들 간의 상이성을 밝혀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Meece & Holt 1993). 즉 군집분석은 유사한 사람들끼리 묶어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문화변용 문항들의 측정 변인의 단위를 표준화(Z score)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방법의 하나인 왈드법(Ward's method)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고 군집화 일정표와 수직 고드름표 및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바탕으로 군집수를 결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확인된 군집수를 바탕으로 2차적으로 비계측적인 방법인 K-평균 군집분석(K-means cluster analysis)을 통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아래 <그림 1>과 같이 4개의 군집화가 최적의 군집수로 결정하였고, K-means 군집분석을 통해 측정된 군집수에 따른 문화변용 단계별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Z-score는 아래 <표 6>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문화변용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표 6> 군집유형에 따른 평균(M), 표준편차(SD), Z-score

변수	군집1 (n=41)			군집2 (n=26)			군집3 (n=16)			군집4 (n=7)		
	Z	M	SD	Z	M	SD	Z	M	SD	Z	M	SD
분리	0.538	3.244	0.433	-0.733	2.519	0.264	-0.639	2.573	0.494	1.029	3.524	0.716
주변화	-0.234	3.542	0.586	0.263	3.915	0.437	0.997	4.465	0.456	-1.888	2.302	0.725
통합	-0.134	3.268	0.487	-0.705	2.462	0.590	0.803	4.263	0.560	1.567	4.029	0.535
동화	-0.003	2.765	0.485	-0.975	2.375	0.412	1.194	3.406	0.659	0.912	3.929	0.607

우선 군집유형1 집단은 41명, 군집유형2 집단은 26명, 군집유형3 집단은 16명, 군집유형4 집단은 7명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군집유형1 집단이었다. 군집분석 결과인 Z-score에 따른 결과를 보면, 군집유형1의 경우 Berry의 문화변용 단계 중 분리 유형의 점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군집유형 2는 주변화, 군집유형 3은 동화, 군집유형 4는 통합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Berry의 문화변용 단계를 참고하여 군집유형 1은 ‘분리 유형’, 군집유형 2는 ‘주변화 유형’, 군집유형 3은 ‘동화 유형’,

군집유형 4는 '통합 유형'으로 군집명을 지칭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리 유형에 속하는 군집유형1에 속하는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김현실(201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에 대해서 김현실(2012)에서는 분리와 같은 역기능적 문화변용 유형 상태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놓여 있다고 보았으며, 이들은 한국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국인들과 교류하면서 모국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이 보다 강한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이 두 연구를 통해 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 역시 그러한 특징들로 인해서 분리 유형에 속하는 이민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Berry의 문화변용을 측정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이예슬·김은하 2015; Brown, Gibbons & Hughes 2013; Choi, Miller & Wibur 2009; Schwartz & Zamboanga 2008 등)를 보면, 모든 연구가 4개의 군집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즉 연구자마다 따라 군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컨대 한국에서 유학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변용을 측정한 이예슬·김은하(2015)에서는 동화 단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해외 연구 중 하나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Jang, Kim, Chiriboga & King-Kallimanis(2007)에서는 통합과 분리의 두 가지 유형만 나타났으나, 국내 연구 중에서 본 연구처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김현실(2012)에서는 문화변용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이처럼 연구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Berry가 제안한 문화변용의 네 가지 유형이 모든 이주자 혹은 유학생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이예슬·김은하 2015: 300)을 보여주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문화변용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대상 연구인 이예슬·김은하(2015)와 본 연구의 문화변용 단계가 다른 것은 외국인 유학생과 이민자들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배경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및 문화 적응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고 나면 자국으로 돌아가지만,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사회 및 문화에 적응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 사회 및 문화에 적응해야

하므로 다양한 문화변용의 단계가 나타날 것이다. 특히 Berry의 동화 유형은 이주민의 모국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지우는 대신 주류 사회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는 동화 유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개별적 상황의 변인 차이로 인해 문화변용 단계별 군집분석에서도 그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4.2.2. 군집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다음은 군집유형에 따른 인구 통계학적 차이(연령대,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학습기간, 자녀 유무)의 비율 차이를 위해 교차표를 산출하여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아래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연령대에 따른 문화변용 유형 분석

연령대	군집1 (분리 유형)		군집2 (주변화 유형)		군집3 (동화 유형)		군집4 (통합 유형)		전체		$\chi^2$	$p$
	n	%	n	%	n	%	n	%	n	%		
20대	4	36.40%	4	36.40%	2	18.20%	1	9.10%	11	100.00%	7.369a	0.832
30대	18	42.90%	11	26.20%	9	21.40%	4	9.50%	42	100.00%		
40대	14	46.70%	9	30.00%	5	16.70%	2	6.70%	30	100.00%		
50대	5	83.30%	1	16.70%	0	0.00%	0	0.00%	6	100.00%		
60대	0	0.00%	1	100.00%	0	0.00%	0	0.00%	1	100.00%		
전체	41	45.60%	26	28.90%	16	17.80%	7	7.80%	90	100.00%		

연령대에 따른 문화변용 군집유형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20대에서는 군집유형1=군집유형2>군집유형3>군집유형 4의 순으로 나타났고, 30대와 40대에서는 군집유형1>군집유형2>군집유형3>군집유형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50대에서는 군집유형1>군집유형2만 나타났고, 60대에서는 군집유형2만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른 문화변용 군집유형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거주기간에 따른 문화변용 유형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한국 거주기간	군집1 (분리 유형)		군집2 (주변화 유형)		군집3 (동화 유형)		군집4 (통합 유형)		전체		$x^2$	$p$
	n	%	n	%	n	%	n	%	n	%		
5년 미만	9	37.50%	8	33.30%	5	20.80%	2	8.30%	24	100.00%	2,369a	0.883
5년 이상 - 10년 미만	18	54.50%	9	27.30%	4	12.10%	2	6.10%	33	100.00%		
10년 이상	14	42.40%	9	27.30%	7	21.20%	3	9.10%	33	100.00%		
전체	41	45.60%	26	28.90%	16	17.80%	7	7.80%	90	100.00%		

다음은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문화변용 단계의 비율 차이를 검증한 결과,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군집유형1>군집유형2>군집유형3>군집유형4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도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문화변용 단계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한국어 학습기간에 따른 문화변용 유형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한국어 학습기간	군집1 (분리 유형)		군집2 (주변화 유형)		군집3 (동화 유형)		군집4 (통합 유형)		전체		$\chi^2$	$p$
	n	%	n	%	n	%	n	%	n	%		
1년 미만	7	36.80%	6	31.60%	5	26.30%	1	5.30%	19	100.00%	16.182a	0.37
1년 이상 - 2년 미만	11	50.00%	6	27.30%	2	9.10%	3	13.60%	22	100.00%		
2년 이상 - 3년 미만	8	61.50%	5	38.50%	0	0.00%	0	0.00%	13	100.00%		
3년 이상 - 4년 미만	4	50.00%	2	25.00%	2	25.00%	0	0.00%	8	100.00%		
4년 이상 - 5년 미만	4	36.40%	1	9.10%	5	45.50%	1	9.10%	11	100.00%		
5년 이상	7	41.20%	6	35.30%	2	11.80%	2	11.80%	17	100.00%		
전체	41	45.60%	26	28.90%	16	17.80%	7	7.80%	90	100.00%		

또한 한국어 학습기간에 따른 교차표를 작성한 결과, 학습기간 1년 미만에서는 군집유형1)군집유형3)군집유형3)군집유형4의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군집유형 1)군집유형2)군집유형4)군집유형3의 순이었고, 2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에는 군집유형1)군집유형2으로 나타났다으며, 3년 이상-4년 미만에서는 군집유형1)군집유형2=군집유형3으로 나타났다. 4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는 군집유형3)군집유형1)군집유형2=군집유형4로 나타났으며, 5년 이상인 경우는 군집유형1)군집유형2)군집유형3)군집유형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학습기간에 따른 문화변용 군집유형 비율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0〉 자녀 유무에 따른 문화변용 유형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

자녀 유무	군집1 (분리 유형)		군집2 (주변화 유형)		군집3 (동화 유형)		군집4 (통합 유형)		전체		$x^2$	$p$
	n	%	n	%	n	%	n	%	n	%		
자녀 무	8	61.50%	2	15.40%	2	15.40%	1	7.70%	13	100.00%	1.860a	0.602
자녀 유	33	42.90%	24	31.20%	14	18.20%	6	7.80%	77	100.00%		
전체	41	45.60%	26	28.90%	16	17.80%	7	7.80%	90	100.00%		

마지막으로 자녀 유무의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군집유형1>군집유형2=군집유형3>군집유형4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자녀가 없는 경우와 비슷한 순으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자녀 유무에 따른 문화변용 군집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측정한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요약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개별적 변인인 거주기간, 한국어 학습기간, 연령대 및 자녀 유무 등은 문화변용의 군집유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기간이나 한국어 학습 기간 등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여 살아가면서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한다고 하여, 이들의 문화변용 유형이 주변화 및 분리 단계에서 동화나 통합 유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그동안 Berry의 문화변용 단계를 참고로 하여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을 논의한 연구 결과(임은미·정성진·이수진 2010)와 동일하다. 즉 한국에서 지내는 물리적인 시간이 증가한다고 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변용 유형이 저절로 통합유형으로 변모하지 않는다. 또 한국어 학습 기간도 마찬가지로, 학습 시간의 양이 길어진다고 하여 문화변용의 통합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연구(이승종 1996; 임은미·정성진·이수진 2010; 최태일 2001 등)와 동일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제2언어 사용 환경에서의 언어 능력은 문화적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요인이지만, 필

수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어 사용 능력이 능숙하다고 하여 문화변용 중 통합유형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앞서 측정한 문화변용 단계의 군집유형에 따른 카이제곱 검정 결과가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한국어 사용으로 인해 오는 언어적 어려움은 해결하는 것과 한국 문화 적용은 서로 분리하여 또 다른 측면에서의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어 학습만이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모국 문화와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문화적응 관련 프로그램이 문화변용 유형 단계별로 구성되어야 운영될 필요가 있다.

### 4.3. 문화변용 군집유형별 한국어 학습 동기 양상

제2언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어 학습 동기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학습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자연적 습득 환경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4.1절에서 한국어 학습 동기 양상에 대한 문화변용 단계별 군집유형별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일원배치 분산분석 분석 결과

종속 변수	집단	<i>N</i>	<i>M</i>	<i>SD</i>	<i>F</i>	<i>p</i>	<i>Duncan</i>
이상적 자아	군집1	41	3.6626	0.914	13.935***	.000	a, b>c, d
	군집2	26	3.0897	0.85665			
	군집3	16	4.7083	0.53229			
	군집4	7	4.3095	0.66269			
필연적 자아	군집1	41	3.3699	0.88153	2.242	0.089	-
	군집2	26	3.1218	0.88388			
	군집3	16	3.5729	1.15785			
	군집4	7	4.0952	0.89161			

통합적 도구 지향	군집1	41	4,2744	0,69102	2,333	0,080	-
	군집2	26	3,9808	1,00231			
	군집3	16	4,6563	0,63163			
	군집4	7	4,3571	1,0394			
도구적 도구 지향	군집1	41	4,1854	0,81165	1,786	0,156	-
	군집2	26	3,9769	0,7361			
	군집3	16	4,55	0,6			
	군집4	7	4,2571	1,11184			

분석 결과, 위 <표 12>에서 보듯이 필연적 자아, 통합적 도구 지향, 도구적 도구 지향에서는 문화변용 군집유형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이상적 자아( $F=13.935, p<.001$ )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이상적 자아에 대해서 사후 분석(Duncan)을 실시한 결과, 이상적 자아는 군집유형1(분리)과 군집유형2(주변화)가 군집유형3(동화)과 군집유형4(통합유형)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상적 자아는 제2언어 학습자가 자신이 되기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제2언어를 학습하는 것으로 이상적 자아에 대한 설문 문항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 사람처럼 한국인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 직장생활(커리어)에서 언제든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이웃과의 대화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처럼 한국어를 사용하여 미래의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위해 한국어 학습을 하는 동기이다. 이런 설문 문항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분리 유형 및 주변화 유형에 속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정체감 형성을 못하고, 자신의 모국인들과 교류하여 모국에 대한 문화적 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이상적 자아와 관련한 한국어 학습 동기를 지지하며 자신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 향상에 대한 스스로의 기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Higgins(1998)에서는 이상적 자아는 희망, 포부, 진보, 성장 성취 등과 관련되어 있고, 이에 Dörnyei & Chan(2013)에서는 이상적 자아는 제2언어 성취도의 상관성에서 유의미하다고 하였다. 즉

이상적 자아는 제2언어 학습 동기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적용되기에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더 생생하고 세부적인 이미지를 갖는 학습자일수록 제2언어 학습 동기가 높다(왕흥범 2022: 182).

요컨대, 위 <표 12>에서 보여주는 통계적 결과는 이상적 자아 동기를 지닌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실제적인 한국어 학습의 수행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미래에 되고 자기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를 가질수록 한국어 학습 동기가 높고, 이는 한국어 습득 및 학습의 성취까지 이어진다. 이와 달리, 동화 유형 및 통합 유형에 속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상적 자아 관련 한국어 학습 동기가 낮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문화적응 측면에서 긍정적인 양상인 동화 및 통합 유형에 속해도 한국어 습득 및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이상적 자아 관련 동기가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여, 결국 한국어 습득에 대한 목표 의식이 사라지거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성취도 등이 낮아질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5. 결론 및 제언

그동안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및 습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차별화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한국어 교재도 출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거주기간이나 학습기간이 장기화되어도, 이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은 교실 내 학습자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그동안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연구들은 이들의 언어적 지식의 습득 및 사용에 중점을 둔 논의가 활발하지만, 정의적 요인의 하나인 한국어 학습 동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당연히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바람(강수정 2019; 김광

수·장사형 2016 등)이 일반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는 통합적 동기가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제2언어 학습 동기는 학습자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제2언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동기 요인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적용되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Berry의 문화변용 유형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가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위하여 양적 연구 방법인 설문지법을 활용하여 증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변용에 따른 군집화 분석을 실시한 결과, 크게 네 유형인 주변화, 분리, 동화, 통합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후 문화변용 유형에 따른 한국어 학습 동기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이상적 자아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이상적 자아는 문화변용 유형 중 주변화와 분리 유형에서 높았으나, 동화 및 통합 유형에서는 낮았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그동안 제2언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민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통합적 동기를 강조하였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변용 단계에 따라 한국어 학습 동기도 변모한다는 것을 밝혀졌다. 즉 제2언어 학습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도 교실 내 학습자처럼 끊임 없이 변화하며, 특히 문화변용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통념상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는 통합적 동기가 더 강한 특성을 보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한다. 즉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는 문화변용 유형에 따라 한국어 학습 동기가 변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해야 한다.

두 번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변용 유형이 주변화 및 분리에서 통합 및 동화 유형으로 이행될 때, 이상적 자아와 관련한 한국어 학습 동기가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목표어의 사회 및 문화에 잘 적응하는 동화 및 통합 유형에 속한다고 하여, 제2언어 학습 동기 중 이상적 자아 동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어교육 과정에 한하여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교육 과정 및

한국어 교재들은 주로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육아를 위한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 사회 및 문화,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어머니와 아내 역할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역할에만 초점이 이루어져 있어서 오히려 한국어 학습 동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여성결혼이민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발전이나 자신들을 위한 한국어 능력 향상이 아닌, 가정 내에서 아내와 양육자로서 책임과 의무에 따른 한국어 학습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결국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는 스스로에 대한 발전이 아닌 가정 내의 역할에 필요한 도구적 동기만이 남게 될 것이다. 물론 가정 내의 양육자나 아내 역할로서의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정 내의 역할에만 한정된 한국어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학습 동기는 저해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학습 동기를 살펴보고, 이를 문화변용 유형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이 서울 및 경기도에 한정되어 있으며, 양적 연구라는 점에서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 양상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질적인 연구 방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강나영(2009), <결혼이민 여성의 한국어 학습과 언어사회화>, 《한국문화인류학》 42(1), 221-260, 한국문화인류학회. Kang, N. Y. (2009). Korean language acquisition and socializ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42(1), 221-260.
- 강수정(2019),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현황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제언>, 《다문화와 평화》 13(1), 139-163,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Kang, S. J. (2019). The suggestions through a study on status and previous researches

- concerning Korean education of immigrants. *Multiculture & Peace Institute*, 13(1), 139-163.
- 권미경·이소연(2017),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학습 동기와 학업성취에 관한 질적 연구>, 《새국어교육》 110, 147-181. 한국국어교육학회. Kwon, M. K., & Lee, S. Y. (2017). Qualitative research about motivation for studying Korean language and learning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youth from accompanied entry. *The Academ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110, 147-181.
- 김광수·장사형(2016),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 언어선택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4(3), 5-25,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Kim, K. S., & Chang, S. H. (2016). A narrative inquiry on female marriage immigrants' experiences of language selection for their children. *Journal of Narrative and Educational Research*, 4(3), 5-25.
- 김미강·김영주(2018),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습 동기, 불안 및 문화적응 간의 상관관계 연구>, 《이중언어학》 73, 1-28, 이중언어학회. Kim M. K., & Kim Y. J. (2018). A study on the correlations among academic motivation, anxiety, and acculturation of immigrant adolescents. *Bilingual Research*, 73, 1-28.
- 김윤희·전형길(2016), <중국인 학부생의 읽기 동기가 읽기 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Korean Culture》 35, 33-59,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Kim Y. H., & Jeon, H. G. (2016). The effect of reading motivations of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on reading strategy use. *Journal of Korean Culture*, 35, 33-59.
- 김태영(2008), <토론토 한국 이민자들의 영어 학습동기 및 신념: NVivo를 활용한 정성적 사례 연구>, 《사회언어학》 16(2), 141-168, 한국사회언어학회. Kim, T. Y. (2008). Korean immigra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er beliefs in Toronto: A qualitative case study based on NVivo.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6(2), 141-168.
- 김현실(2012),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문화 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2, 39-70, 한국보건사회학회. Kim, H. S. (2012). impacts of acculturation &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 migrant women, *Health and Social Science*, 32, 39-70,
- 노하나(2007),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유형과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Nho, H. N. (2007).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of the Chinese women who got married to Korean men and settled down in Korea: Focusing on the acculturation patterns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류경애(2016), <한국어 교육목적과 학습동기 변인에 따른 상관성 분석>, 《한국언어문화학》 13(1), 31-55,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Ryu, K. A. (2016).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of education objectives and learning motives of Korean languag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13(1), 31-55.
- 박혜숙·이호정(2013), <제2언어 동기적 자아와 의사소통의지가 영어학습에 미치는 영향: 구조방정식 모형을 바탕으로>,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8(2), 259-284, 글로벌영어교육학회. Park, H. S., & Lee, H. J. (2013). L2 motivational selves and WTC in Korean college learners of English: From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18(2), 259-284.
- 선봉규·김나경(2013), <중국 연변조선족의 문화변용전략 양상 연구: 연길시 거주 조선족을 대상으로>, 《평화학연구》 14(5), 277-299, 한국평화연구학회. Sun, B. K., & Kim, N. K. (2013). A study on the acculturation of Yanbian Korean Chinese. *The Journal of Peach Studies*, 4(5), 277-299.
- 손성희·전나영(2011),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분석>, 《한국어 교육》 22(3), 133-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Shon, S. H., & Jeon, N. Y. (2011). A study of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of Korean language learners.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2(3), 133-152.
- 신미숙(2021), <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한국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시 거주 이민자를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Shin, M. S. (2021). *The type of cultural adaptation and social support of immigrants effects of Korean social adaptation o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 오지훈(2014),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유아의 언어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Oh, J. H. (2014). *Maternal acculturation and preschool children's language and social abilities in multicultural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 왕홍범(2022),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에 대한 연구: 동기적 자아 체계와 자기 효능감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18(3), 175-216,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Wang, X. F. (2002). A study on learning motivation of Chinese Korean-language learners: Focusing on motivational L2 self system and self-efficacy. *The language and Culture*, 18(3), 175-216.
- 이승중(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 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 교육학연구》 9, 157-176,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Lee, S. J. (1996). Relations between the acculturative stress and belief system, social support of international student. *The Journal of Yonsei Educational Research*, 9, 157-176.
- 이예슬·김은하(2015).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2(3), 295-316, 한국심리학회산하학교심리학회. Kim, E. H., & Lee, E. S. (2015).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types of acculturation, acculturative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2(3), 295-316.
- 이주미(2021), <목적 이론에 기반한 학습 동기와 학습 성향, 한국어 쓰기 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연구: 외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45, 175-201,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Lee, J. M. (2021). An analytic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learning motivation, learning orientation, and Korean writing achievement based on the goal theory: Focusing on foreign undergraduate Korean learners. *Hansung-eomun*, 45, 175-201.
- 이혜림·박재완(2018),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특성의 변화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7(4), 329-357, 한국정책학회. Lee, H. R., & Bahk, J. W. (2018). Acculturation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An analysis of changes in

- strategies and characteristics.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7(4), 329-357.
- 임선일(2010). <에스니시티(ethnicity)의 변형을 통한 한국사회 이주노동자의 문화변용 연구>, 《산업노동연구》 16(2), 381-424, 한국산업노동학회. Lim, S. I. (2010). A study on the acculturation through ethnicity transformation of migrant workers in Korea.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16(2), 381-424.
- 장아남·김영주(2014), <한국어 학습자의 L2 학습 동기, 불안 및 자아 간의 상관관계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0, 310-33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Zhang, Y. N., & Kim, Y. J. (2014). A study on the correlations among L2 learning motivation, anxiety and L2 selves of learners of Korean.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40, 310-337.
- 전형길(2016),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동기 구성 요인 연구>, 《이중언어학》 60, 255-286. 이중언어학회. Jeon, H. G. (2016). The study on reading motivations of KAP' students reading activity. *Bilingual Research*, 60, 255-286.
- 정성현(2010),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및 태도에 따른 학습 전략 연구: 한국과 중국에서의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Jung, S. H. (2010). *Study of learning strategy according to learning motivation and attitude of Korean language learners: Centered on Korean language learners in Korea and China*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 정윤나(2015), <한국어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과 읽기 전략의 상관성 및 인과성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Jung, Y. N. (2015). *A study on the correlation and causality between affective factor and reading strategy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정현경(2017), <제 2언어 동기적 자아 체계와 외국어 학습 불안감이 중학생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Jung, H. K. (2017).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2 motivational self system and language anxiety for middle school English learn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지민정(2015),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연구>, 《한국어교육》 26(2), 213-23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Jee, M. J. (2015). A study of language learner motivation:

- Learners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26(2), 213-238.
- 최태일(2001). <주한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26. Cho, T. I. (2001). *Th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er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홍순혜·이숙영·김선화(2010),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변용 추적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1), 343-365, 한국사회복지학회. Hong, S. H., Lee, S. Y., & Kim, S. H. (2010). South Korea among North Korean defecti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2(1), 343-365.
- 홍종명(2014),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 학습 동기 연구>, 《語文論集》 60, 421-446, 중앙어문학회. Hong, J. M. (2014). A study on the motivation of migrant youths as Korean language learners: Focusing on th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of Chinese students. *The Society Of Chung-Ang Language & Literature*, 60, 421-446.
- Berry, John W. (1990).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Health consequences of culture contact among circumpolar peoples. *Arctic medical research*, 49(3), 142-150.
- Berry, John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 Be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 Brown, C. M., Gibbons, J. L. & Hughes, H. M. (2013). Acculturation clusters and life satisfaction. *Acta de investigación Psicológica*, 3(2), 1108-1121.
- Brown, H. (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earson.
- Choi, J., Miller, A., & Wibur, J. (2009). Accultur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immigrant women.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11, 13-19.
- Dörnyei, Z. (2005). *The Psychology of the Language Learner: Individual Differen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wrence Erlbaum, Mahwar.
- Dörnyei, Z. (2009). The L2 motivational self system. In Z. Dörnyei & E. Ushioda (Eds.),

- Motivation, language identity and the L2 self* (pp. 9–42). Multilingual Matters.
- Dörnyei, Z., & Chan, L. (2013). Motivation and vision: An analysis of future L2 self images, sensory styles, and imagery capacity across two target languages. *Language Learning*, 63(3), 437–462.
- Dörnyei, Z., & Ottó, I. (1998). Motivation in action: A process model of L2 motivation. *Working Papers in Applied Linguistics*, 4, 43–69.
- Gardner, R. C., & Lambert, W. E.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Newbury House.
- Higgins, E. T. (1998). Promotion and prevention: Regulatory focus as amotivational principle.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1–46.
- Jang, Y., Kim, G., Chiriboga, D., & King-Kallimanis, B. (2007). A bidimensional model of acculturation for Korean American older adults. *Journal of Aging Studies*, 21(3), 267–275.
- Meece, J. L., & Holt, K. (1993). A pattern analysis of students' achievement goa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4), 582–590.
- Norton, B. (1995). Social identity, investment, and language learning. *TESOL Quarterly*, 29, 9–31
- Norton, B. (2001). Non-participation, imagined communities and the language classroom. In M. P. Breen (Ed.), *Learner contributions to language learning: New directions in research* (pp. 157–171). Longman.
- Oller, J. W., Baca, L., & Vigil, F. (1977). Attitudes and attained proficiency in ESL: A sociolinguistic study of Mexican Americans in the Southwest. *TESOL Quarterly*, 11, 173–182.
- Schwartz, S. J., & Zamboanga, B. L. (2008). Testing Berry's model of acculturation: A confirmatory latent class approach.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14(4), 275–285.